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중한 날 제 친구 00와, 신랑00을 위하여 모여주신 하객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축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 소개) 저는 신부 00양과 거의 20년을 함께한 친구, 000라고 합니다. 친구 결혼식 축사는 처음이라 떨리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나도 아끼는 내 친구 00아, 우리들끼리 웃으면서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다고 말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말이야~ 진짜 정말 제일 먼저 가는구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너와 00오빠의 중요한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다 해버리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해볼게. 내가 힘들 때는 제일 먼저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나보다도 더 많이 기뻐해주는 00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우리가 철없이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지, 그 때가 너무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서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성숙한 생각으로 항상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어 고맙고, 너로 인해서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 이 자리를 빌려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야무졌던 네가 선택한 00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 일거고,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10대 20대를 함께 보냈던 너를, 이제는 00오빠에게 보내줘야겠네 (웃음)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 00오빠! 우리 00이 지금처럼 많이 아껴주세요. 걱정도 많고, 마음도 여린 00이가 걱정없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멋진 남편이 되어주세요.

(둘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서로 부족한 점도 있고, 처음이라 서툰 점도 있겠지만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함께 힘든 일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00이 꼭 잘 부탁드립니다(신랑 신부를 보면서)

(마무리) 0월의 멋진 날, 두 사람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